

주일의말씀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



전광진 엘마노 신부
태전성당 주임

저는 차를 좋아해서 자주 차를 마십니다. 차는 건강식품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다기는 후배 신부님이 제 본명축일에 선물해준 것입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매일 저와 만나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기를 덮는 포를 다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다포 가운데 멋진 글이 쓰여 있는 다포가 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그 글을 늘 마음에 음미하곤 합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느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려는 결정을 할 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었고,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신학생들과 함께 독일 말을 배우는데, 저같이 재주가 모자라는 사람은 독일 말 배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초등학교부터 일반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꼴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반에서 1등 하기도 어렵지만 꼴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 말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꼴찌를 다 해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공부를 했지만 꼴찌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람이 꼴찌를 해보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슬한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저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처럼 거듭거듭 청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청하고, 성체를 모시면서 청하고, 성호를 그으면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이 그 말일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내가 소망하는 바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깊고 간절한 청은 주님 마음을 움직이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말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루카18,7
탈출 17,8-13 2티모 3,14-4,2 루카18,1-8.

5. 주님께서 집을 아니 지어주시면 - 1

문화홍보실

1892년, 김보록 신부님께서 거처를 새방골에서 남산공소로 옮겼을 때 공소의 신자수는 12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인 1894년에는 4백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차 신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신 신부님께서서는 신자들에게 성전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요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 성전 건립에 돈을 댈 만한 신자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현금 대신 노동으로 성전 건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해서 1898년에 한옥 기와 집 형태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완공한 대구의 첫 성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성전 완공으로부터 겨우 2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일어난 불은 목조 건물인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망연자실했을까요?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한숨과 원망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 신부님도 편지에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잿더미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도 처음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김 신부님은 실망을 극복하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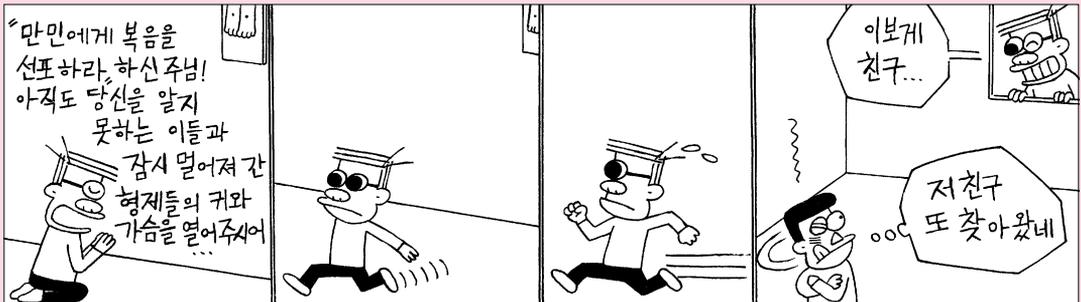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두렵고 거룩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당을 다시 짓기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과연 주님께서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사제관을 비워 미사를 봉헌하였고, 교우들도 주님의 손길이 돕고 계시는 줄 믿고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마침내 2년 남짓 후인 1903년 11월 1일, 이번에는 불에 타지 말라고 벽돌로 지은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성당 건물인 이 성전이 바로 주교좌 계산성당의 전신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놀랍습니다. 당장에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만사가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있겠습니까?

언제나 기도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9주일

입당성가

64 이스라엘 들으라

화답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끓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파견성가

478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영성의 향기

:: 침묵과 비움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
리고 공생활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주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일체이시고 한 본체이신 예수님께
서 이처럼 잠잠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신 까닭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침묵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신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요동
치는 온갖 소리들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자주 체험합니다. 많은 것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안달하며
매일을 보내는 현대인에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불안 속에서 온갖 소지품들을
챙기고 쌓아두고 한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집착이 불안을
달래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거
운 짐이 되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쁘히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요령



어느 부자가 선달 그믐날에 종들을 불러놓고 벼짚 한 단씩 주며 새끼를 꼬라고 명했습니다. 새
끼를 꼬되,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꼬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지만 선달 그믐날까지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할게 뭐람? 그것도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
라고 하니, 밤새도록 끈들 다 꼬겠는가?” 어느 종은 새끼를 꼬다 말다 하는가 하면, 어느 종은 굵
다랗게 꼬아서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우직한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느다랗게 꼬았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이 요령을 피워 일찍 끝내고 자는데도 혼자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엽전이 가득 든 커다란 주머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작
년 한 해에는 너희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이제 너희들이 끈 새끼줄로 이 엽전을 끼워 가져가거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도록 하여라. 단, 새끼줄에 끼워야만 가져갈 수 있다.” 요령을 피웠던 종들은 후회가 막급하였으
나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가느다랗게 새끼를 끈 충직한 종은 많은 돈을 상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도 요령으로 때우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 옮겨온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생명평화미사

· 일시: 10.18(월) 19:00, 대전성당
대전 자율형 사립고 대구구별 입학 설명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입시전략)

- 1대리구: 10.30(토) 14:00 계산주교좌성당
- 2대리구: 11.6(토) 14:00 범어성당
- 3대리구: 10.23(토) 14:00 월성성당
- 대상: 중학생 및 학부모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은예수회 창립26주년 송년감사제

- 일시: 11.1(월) 11:00~16:00
- 특별강론: 정인준신부, 박성구신부
-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 교통편: 지역별 출발 있음 02)777-6444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성소 / 파정 ★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10.20(수)13:00~17:00, 지도: 강요섭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10.22(금)18:00~24(일)17:00, 수지성모교육원
- 내용: 성경과 함께하는 성소식별피정
- 문의: 016-606-2885

성경과 함께 하는 성소 식별 피정

- 일시: 10.22(금) 17:00~24(일) 16:00(미사 있음)
- 장소: 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
- 회비: 5만원, 대상: 미혼 신자 여성
- 주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문의: 호세야수녀 016-332-2885 / 02)2171-1638

예수회 까리파스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23(토) 19:00~21:00
-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10-2568-5231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젊은이 가을피정

- 1차: 10.23(토)-24(일), 2차: 11.6(토)-7(일)
- 주제: 좀 쉬어라!, 문의: 011-803-8973
- 대상: 33세 미만 여성

사랑의 씨든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10.24(일) 14:00~17:00
- 장소: 하양 수녀원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천주 섭리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24(일) 14:00, 성당성당 수녀원
- 문의: 010-3940-3635 / 626-6213

※성소상담 언제나 가능

성체조배일일대피정(010-5493-1819)

- 일시: 10.25(월) 10:00~17:00
- 강사: 정구한레오나르도신부(예수회)
- 장소: 가톨릭교육원 대강당
- 주관: 대구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령피정

- 일시: 11.20(토) 11:00~21(일) 16:00
-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인원: 100명 선착순, 회비: 5만원
- 문의: 011-490-5345 myungkkot@hanmail.net

※ 사전접수해야 피정 가능

★ 모집 / 교육 ★

뿌에리칸뜨레스 합창단 모집

-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 문의: 대구가톨릭음악원 255-4847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 제3기 제대꽃꽂이 강좌반 모집
- 신청: 10.17(일)~11.7(일), 11.23(화) 개강
- 1년과정: 기초반, 전문가반, 연구반.
-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문의: 010-5156-8226 / 010-5501-4042

청년 프란치스코회원 모집

- 자격: 만35세이하 가톨릭신자(결혼무관)
- 모임: 10.23(토) 14:00
- 장소: 월배성당 내 프란치스코수도원
- 문의: 632-9800 / 010-7503-8852

제9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 성인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 기간: 1차 2011.1.1(토) 출발, 8주, 12주
- 청소년(초4중3) 6주 영어연수

- 설명회개최: 11.13(토)15:00
- 문의: 593-1273

영남대학교의료원 가톨릭원목실

머리감기기 자유훈사자 모집

- 시간: 월 or 목 13:30~16:00
- 문의: 620-4486 / 010-4519-4486

충주성모학교 학생 모집

- 대상: 시각장애 교육을 희망하는 유~고등학교(재활과정)

- 접수: 10월~12월(항시상당)
- 특전: 맹아원입소,취업,대학진학 등
- 문의: 043)852-1374

★ 직원 채용 ★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모집(630-3000)

- 기간: 10.17(일)~30(토) 17:00까지
- 까리파스간병회 간병사,요양보호사 모집
- 자격: 55세미만의 가톨릭신자
- 문의: 621-4779

교구청청소년담당계약직(기획담당)모집

- 자격: PC활용가능자,교리교사(3년이상) 주일학교프로그램 기획 가능자
- 마감: 10.21(목) 15시까지 방문 접수
- 문의: 사목국 청소년담당 250-3064

★ 안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홍순걸(요셉), 이일근

2011년 대구주보 광고 접수안내

- 일시: 11.8(월) 09:00, 교구청별관 1층 대화합실
- 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 2.교적사본 3.본당신부님추천서 4.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신부님추천서 5.광고문안
- 광고료: 1회 12만원, 대축일 15만원(전액 선금)
- 참조: 사업주가 담당자이거나 교구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광고불가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포항지역 균중후원의 미사	10월 1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한티성지 후원의 월례미사	10월 18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10월 18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의 미사	10월 19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2484 익스프레스

- 철곡 313-2484
- 서구 566-2484
- 달서구 637-2484
- 수성구 761-2484
-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여러분의건강을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전국 실시

성모노인복지센터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
등급 판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내 가족을 돌봐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달서센터:564-1577, 남구센터:475-1577
수성센터:781-9057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20년 역사의 SHINCHUN 이 운영하는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순순(오말리아)

범여네거리
코리야 알트만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배선익(사도요한)
TEL: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여역
범여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